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시울코리아 함께 응원합니다.

제 1348 호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김정은, 열차로 평양 떠나 러시아로 이동 중인 듯”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군사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연회장 입구 양옆에 김정은·푸틴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2일이나 13일 열릴 수 있는 관측이 나오지만, 14일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당국에서 파

악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동 중인 것 같다"고 확인했다. 열차는 지난 10일 오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동연방관구 기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러시아 당국 소식통

발로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를 향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등을 계기로 이르면 오는 12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경우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5개월 만에 같은

도시에서 재회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전하구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은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EEF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매체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김정은이 EEF에는 참석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과 별도 장소에서 만나거나 오는 13일까지인 EEF 기간 이후에 회담 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김정은의 방러와 북러 정상회담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이 이

달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 고 보도하면서 가시화했다.

미 백악관도 이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전진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기대한다고 확인함으로써 북러 정상의 초점이 무기 거래에 맞춰 졌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찾을 경우 EEF가 가장 유력한 회담 접선 장소로 여겨졌으나 북러는 지난 10일 EEF가 시작된 뒤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서방 매체 보도로 동선이 노출된 데 따른 경호 문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느꼈을

부담 등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바꿀 만한 근거들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북한은 그 사이 전술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

형 잠수함을 지난 8일 공개하고,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은 지난 9일 '9·9절'에 중국 대표단을 초청해 열병식과 축하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김정은의 열차는 도발적 무력 과시와 9·9절 중요 행사가 마무리된 뒤 북동쪽 국경을 향해 전격 출발했다.

회담 성사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김정은의 열차가 러시아로 향한 만큼 국제사회와의 '외톨이들'인 김정은과 푸틴이 뭉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신생전 기류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뛰어들 경우 스스로 안보리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사실상 서방 전체를 상대로 흘로 치러 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갈 포탄 등을 확보하게 된다.

/ 송원기 기자

## 이재명, 12일 사흘 만에 재출석…檢, 대북송금 조사 마무리 주력

"오전에 오라 했는데 오후에 일방 출석"…조사시간 부족해 압축 질문할 듯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사흘 만인 12일 재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2차 출석을 끝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위한 질문을 재점검하고 있다.

쌍방을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을 대납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조사는 조서 열람을 제외하면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6시 40분에 종료됐다. 20분간 3차례 휴식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는 7시간 정도 이뤄진 셈이다.

첫 조사에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의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두 번째 소환조사는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는데, 이 대표 측이 오후 1시 30분에 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내일 얼마나 만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조사 내용은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사법 방해 의혹,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의 조개기 후원금 의혹 등이다.

/ 이민성 기자

##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러시아와 관계 붕괴" 경고

러시아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타斯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미국 탄약 거래에 관한 서방 언론 보도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대리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집단의 노선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한국이 올해는 수출 제한 목록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손실을 봤다.

이제 그들은 이 시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한국의 항공편 직항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관광 비자 면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양국 인적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박현욱 기자

연금부지  
한국투자

## 알아서 잘 크는 내 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 디플트옵션

이렇게 바쁜데 퇴직연금까지 관리하라고?  
전문가가 알아서 잘 키워주는 한국투자증권 디플트옵션으로  
퇴직연금도, 시간도 벌어보세요

디플트옵션  
자세히보기

유의사항

가입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의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대면 계좌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1.5억원 이하 0.15%, 1.5억원 초과 0.10%이며 자산관리수수료는 0.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717호(2023-03-03 ~ 2024-03-02)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 尹 “우크라에 내년 3억불 지원…2025년 이후 20억불 추가”

“다자개발은행 개혁 주도할 것…가짜뉴스 맞서 새 디지털 규범 정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오는 2024년 3억 달러(한화 약 4천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뉴델리 바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일상회복을 돋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올해 1억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과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총 3억 달러를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 '하나의 지구'에 참석하고 있다.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

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같은 시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 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당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을 설명하며 이달 말 한국의 '디지털 권리 장전' 발표 계획도 공개했다.

/ 김성훈 기자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 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

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솔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효성 기자

## 수억원대 도박 빚 있던 대전 신협 강도, 다낭 카지노서 체포

### 공개수배 사흘만에 “도박장에서 봤다” 한국인 제보 전화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베트남에서 불잡힌 피의자 A(47)씨는 겸겨 당시에도 다낭 현지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로 탐문수사를 이어가던 중 공개수배로 전환기로 하고 지난 8일께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A씨는 경찰이 베트남 다낭 현지 공개수배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개수배 이후 'A씨가 현지 한인 마트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절도 범행을 하는 장면이 한인 마트 내 CCTV에 잡혔는데, 수배 전단 속 A씨의 사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께 "4~5일 전쯤 피의자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 전화를 받았다.

대전경찰청은 대전 서부경찰서로 결려온 이 전화 내용을 즉시 현지 공안과 공유하고, 잠복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3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55분(다낭 현지 시간 4시 55분)에 A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내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져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겸겨 당시에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소지한 채 도박판을 기웃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베트남 경찰이 진행한 기초 피의자 조사에서 대전 신협 강도 범행을 시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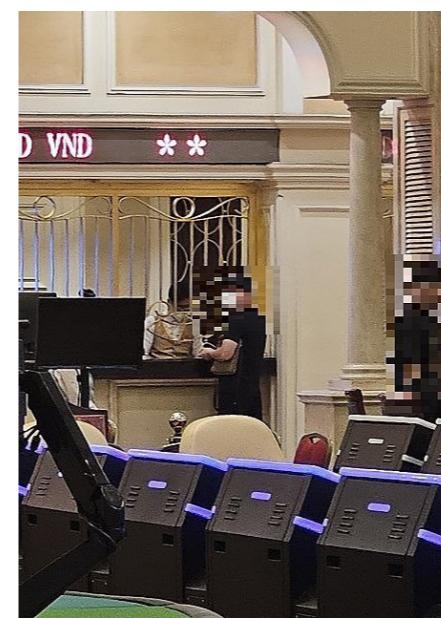
A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훔쳐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전후 오토바이, 택시 등 여리 이동 수단을 번갈아 가며 CCTV가 없는 길을 찾아 도주하고, 10회에 걸쳐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3천여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신원을 확정했지만, A씨는 전날 이미 다낭으로 출국한 뒤였다.

대전경찰청은 국내에 있는 주변인 조사와 금융, 통신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행방을 파악하고, 경찰청 외사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즉시 요청한 뒤 A

씨를 주적해왔다.



베트남 다낭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 강민중 기자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로 10~15분 지연



차로 갈아 타고 읊지로 3·4가역 쪽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사는 시위 여파로 오전 8시50분 기준 내

선 순환 열차 10분, 외선 순환 열차는 15분 가량 지연됐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지난 5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8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고 이날 두 번째로 탑승 시위를 했다.

단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과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소희 기자

## 공항, 새로운 시작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초융합 글로벌 공항그룹으로 43년간 쌓아온 공항운영 노하우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KAC**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전엔 화천대유 안 가…검찰의 조작 시도”

## 압수물 포렌식 참관차 검찰 출석…구속영장 청구 전망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11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의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작 시도”라며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에 출석했다.

신씨는 출석하며 “(2021년) 9월15일에 서 20일 사이 화천대유를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그 이전에 화천대유는 천화동인이든 언저리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이것을 조작해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에 갔을 때 관계자 두 분을 소개받았고, 그중에 한 분은 김만배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번 더 만났다”며 “김만배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했으니까 미안하잖나. 그런 점과 관련된 것이다. (김만배의) 건강 상태를 한 번 물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기자회견

보고 (김만배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자신을 이사장에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그것은 김만배 씨가 말하지 않느냐. 왜 저한테 묻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인터뷰·보도 경위, 금품

수수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가 협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진술이 엇갈리는 공범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자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신씨가 보도 전후로 김씨와 긴밀히 연락한 정황으로 미뤄 “거의 20년 만에 만나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김씨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3월께부터 대장

동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학림을 이사장에 앉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같은 해 여름에 신씨가 화천대유 사무실도 몇차례 다녀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자신이 받은 1억6천500만원이 책 3권을 판 값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판권을 산 것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상태다. 또 신씨는 책 판매 시점을 인터뷰 이후라고 말했지만, 실제 도서 판매계약서는 2021년 3월1일자로 작성됐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신씨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등 과거 이력 등을 바탕으로 ‘배후 세력’까지 살펴보고 있다. 신씨는 8 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민주당 측과 인터뷰 사이 연관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다. / 박현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경직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직된 방

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해 방송사가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미디어에 맞춰져 있던 규제 체계를 신구 미디어가 동반 성장할 규제 체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에만 콘텐츠 수출 액이 124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해왔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물론 아직 안주하기는 어렵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이 치열해졌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해 국민

/ 최형찬 기자

## 해군 “홍범도함 함명 의견수렴 필요” 현재로선 변경 검토 안해”

해군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역대 해군참모총장 정책자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팀장은 “현재 해군이 홍범도함 함명 변경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대신 현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군이 지난달 28일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입장에서 다소 결이 달라진 것이다.

함명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국방부를 통해 지침이 내려온 적 있느냐 질문에는 “따로 그런 지침은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내 홍 장군 흉상 이전이 결정되자 여권과 정부·군 일

각에서는 홍범도함의 함명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데수 국무총리는 지난 달 3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을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답변에서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남성윤 기자

SAMSUNG

## Galaxy Z Flip5

**Galaxy Z Flip5**

**samsung.com**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sung.com](#)에서 확인하세요.

이미지를 즐기기 위해 연결된 이미지입니다.

##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논란…하루새 팔로워 7천여명

### 누리꾼들 옹호 “가해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정의 구현해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살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 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족벌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천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은 “용기 있고 멋있다”, “경찰도 못 하는 걸 10세 소년이 하네”, “무슨 선을 넘어도? 이게 정의 구현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응원하겠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나쁜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동기를 설정하고 직접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기 있는 시민으로 스스로 나서 소위 흥길동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 의왕 상수도 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 토사에 매몰돼 사망

###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서 발생

11일 오전 10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고천동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2m 50c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구덩이 인근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상수도관을 응접하던 7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이 매몰됐다.

공사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분 B씨를, 오전 11시 29분 A씨를 각각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와 B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흙구덩이 근처에 토사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 고 말했다.

해당 공사는 의왕시가 원청을 맡았으며, A씨와 B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 곽진욱 기자

## 이재명 “국방장관 탄핵 추진…‘해임요구 거부’尹, 국민에 항명”

채상병 사건에 “장관 해임하지 않는 건 ‘수사외압 대통령 지시’ 스스로 증명한 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1일째인 10일 국회 앞 단식 농성 현막에 앉아 있다. 원쪽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해병대 체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며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니”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현 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 김석준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기현, 송철호·황운하 ‘징역형 구형’에 “선거공작은 강도질”

“만감이 교차…‘최악 선거공작’에 구형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한 데 대해 “착잡한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권력과 언론이 손발을 맞춰 저 김기현에게 집단태리를 가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그저 맞기만 해야 했던 참혹한 기억이 새삼 되살아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돋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김 대표 관련 비위 정보를 넘겨받은 ‘하명 수사’를 한 결과 김 대표가 낙선했다는 게 의혹의 골짜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 공작임에도 기울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3년 8개월간 지

연된 재판 뒷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 DNA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일급 살인죄”,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공작은 민



의를 훔치는 강도질이다. 권력을 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조직해 민심을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이라고 적었다.

/ 이성근 기자

## 정부 “오늘 오염수 1차 방류 종료 2차 개시 시점은 미정”

정부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늘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1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24일 방류를 시작한 후 총 7천 763㎥(776만 3천L)가 방류됐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2천 440 억 베크렐(Bq)이었다”며 “긴급차단밸브 작동이나 수동정지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류 기간 해수배관해더와 원전 부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정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2차 방류 개시 시점은 미정”으로 확인됐으며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에 파견된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 결과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박 차장은 “전문가들은 지난주 금요일 까지 약 2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현장사 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포함해 IAEA와 기술 회의를 수차례 밀도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회의 통해 IAEA가 도쿄전력과 별개로 해수배관해더 및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핵종 농도를 자체 분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의 점검활동 범위가 중앙 감시제어실·K4 탱크 등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와 오염수 이송설비를 관찰하고, 주요 설비의 구체적 위치 정보도 확인했다고 박 차장은 말했다. / 정도경 기자

## 이재명에 “단식마저도 방탄으로 이용…여의도 반칙왕”

“檢조사 비협조, 영장청구 지연 꼼수…수사방해용 단식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방방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맹비난했다.

12일째로 접어든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조사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 부리며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의 영상 녹화 거부에 대해 “애초부터 조사 때 고립됨을 당했다는 트집을 잡아 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인다”며 “조사를 받고 돌

아온 이 대표는 국민 보란 듯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

안을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라 규정했는

데 이쯤 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쌓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로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 모욕을 주는 게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가 한참 다른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죄의 유무가 여론이 아닌 증거와 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진술 조서 날인 거부에 대해 “이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에는 다 계획이 있었다. 검찰의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가 등장한 셈”이라며 “기상천외한 사법 방탄 기법들이 난무하는 모습에 웬만한 범죄 피의자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자신의 건강마저 내려놓는 마지막 정치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단식마저도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본인의 방탄으로 이용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라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평계 삼아 검찰 수사를 끝끝내 회피하는 이 대표 모습을 보니 ‘여의도 반칙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피의자 이 대표의 태도는 법의 사각지대 안을 찾아 해매는 테크니션 법조인 그 자체였다. 검찰 수사

도 피의자 임의로 중단하고,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며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등 범인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아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한 황제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진술 조서 서명 거부는 검찰 조사 자체를 무효화시킨 것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초과한 법치 농락이고, 느닷없는 단식과 조서 서명 거부는 수사 방해와 재판 시간 끌기용 꼼수”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이성준 기자

## 정의당 강원, 도 교육청에 ‘노란버스’ 논란 대응책 마련 촉구

정의당 강원도당은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11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고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의 추억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안전한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마음 편히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인천교육청 등 지자체 교육청들이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며 “도 교육청은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

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법적 책임의 주체로 나설 것은 물론 이동 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국회의 입법과 법령해석, 관계기관의 논의를 지켜보고 선생님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민강준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player 모집**

# 너답게 다 플레이 해

신한 pay

신한Pay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등  
마이데이터 시대를 함께 알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준법감사 실무자 제20230418-Cprn=001호(2023.04.18~2024.04.17)

Lead by 신한카드

# 한문일 무신사 대표, '어린이집 백지화' 논란 관련 공식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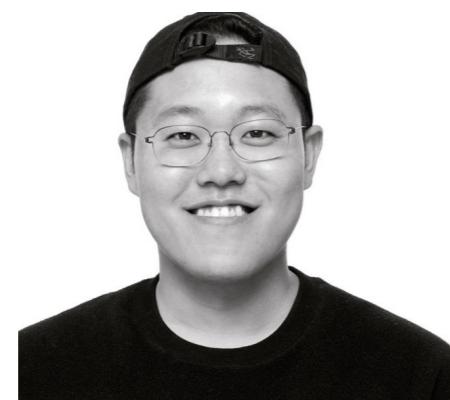
## 전 직원에 이메일…위탁 보육 실시·재택근무도 유지키로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최근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했다.

한 대표는 11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무신사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무신사는 앞서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 한 온라인 미팅에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별



무신사 한문일 대표

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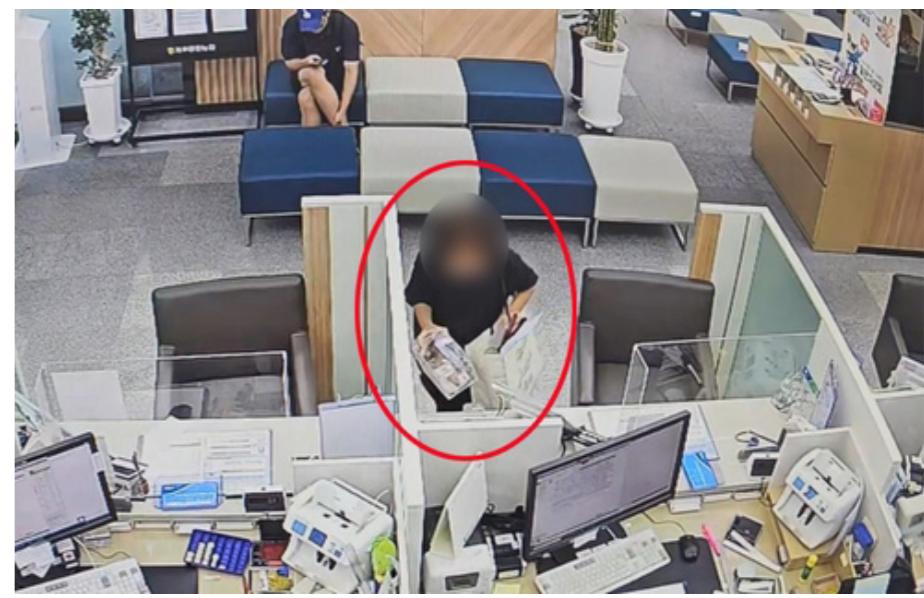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천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

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서울 성수동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지만,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위탁 보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택근무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단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 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근무 형태를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 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도 그대로 운용한다.

한 대표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직원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 곽도훈 기자



은행 창구 위에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쇼핑백에 담고 있는 피의자

## “기초생활수급 혜택 끊겨서” 불우이웃 모금함 통째로 훔쳐

은행을 돌며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제주지역 농협은행 3개소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바쁜 사이 창구 등에 놓여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모금함

을 통째로 담아 갔다.

그가 훔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는 약 20만원이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일 또다시 범행을 위해 농협을 찾았다가 이를 알아본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끊겨 식비 등 생활비가 없어 훔쳤다”고 진술했다.

/ 노건우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유족 “무기징역 확정해달라”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고받았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이 그 뜻을 이어 진행했다.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임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다. / 윤형민 기자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연루 병원 10여곳 압수수색

경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기소)씨의 약물 오·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10여 곳을 수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가 마약류를 처방받았거나 신씨의 마약 혐의에 연루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의원은 현재까지 10곳을 넘는다.

신씨는 사고 당일 항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 다른 항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병·의원들이 신씨 주장대로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했는지, 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처방한 것은 아닌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신씨에게 항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했다. / 박종호 기자



수색하며 마약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압구정 교통사고 피해자 측도 지난 2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을 마약류 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신씨는 이밖에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를 포함한 피고소인 4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신씨 측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를 소재로 방송해온 유튜버 카라풀라에게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튜버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전주 빌라에서 아들 남겨두고 숨진

### 40대 여성 사인은 ‘동맥경화’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주말 A(41)씨 시신을 부검해 나온 잠정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A씨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혈관이 막힌 게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에서는 담석도 발견됐는데 이 때 문에 생전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국과수는 추정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망 원인을 내인사(內因死)로 결론 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께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여성의 곁에는 3~4살로 추정되는 그의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들은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 해 쇠약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의식을 되찾았다.

아들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시신 발견 닷새 전에 여성이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의 별다른 직업이 없는 데다가, 전기·가스비와 건강보험료, 집세 등을 체납한 점으로 미뤄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순철 기자

#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 종부세 특례 이번주부터 신청…공동명의면 ‘은마’도 세금 0원

## 공시가 하락·공제한도 증가 영향…고령자·장기보유 특례도 고려해야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리파’, ‘반포 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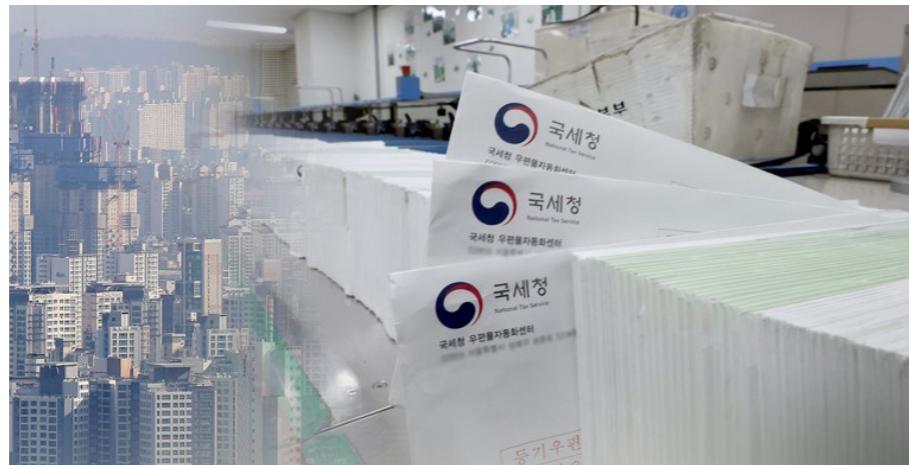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15억5천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천만원이었다. 지난해 1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천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천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 송원기 기자

최근 3년간 양양송이 공판량은 2020년 7천493kg, 2021년 2천948kg, 2022년 4천 734kg이다. 양양송이는 버섯자체의 수분 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됐다.

이날 공판장에서는 송이 외에도 능이와 고무버섯 등 최근 수요가 높아진 임산물도 입찰한다. / 서종익 기자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함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포항시민단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부지매입 철회하라”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함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범대위)’는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홀딩스의 경기 성남시 위례지구 부지 매입을 위한 재임

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7월 성남 위례지구에 미래기술연구원 부지 매입을 위한 입찰에 단독으로 응해 유찰되자 다음 달 초에 있을 재입찰에 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이것은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민과 약속한 합의 정신을 정면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주소를 포함해 두고 위례지구에 미래기술연구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역행”이라며 “미래기술연구원의 성남 설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포항시와 부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를 비롯한 포항 시민단체와 포항시와 함께하는 미래기술연구원은 3월에 본원 문을 열었다.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가 소재지 주소를 포함해 두고 위례지구에 미래기술연구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역행”이라며 “미래기술연구원의 성남 설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포항시와 부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를 비롯한 포항 시민단체와 포항시와 함께하는 미래기술연구원은 3월에 본원 문을 열었다. / 황순길 기자

## 자연산 양양송이 오늘 첫 공판…작년엔 금값, 올해는 과연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양양송이 첫 공판이 11일 시작된다.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과 양양속초산림조합은 산지로부터 채집한 송이를 양양속초산림조합 지하 공판장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거둬들여 오후 4시 30분 첫 입찰

에 나선다. 당일 출하된 송이를 크기와 모양에 따라 1~4등품, 등외품으로 선별해 금·은·동·주황색 띠지를 붙인다.

선별된 송이는 등급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격 투찰자에게 공급된다.

지난해 1등급 송이 최고가는 1kg당

142만3천800원, 최저가는 41만5천510원을 기록했다. 등외품 최저가는 14만1천 510원이었다. 작년 첫 공판에서는 81kg이 수매됐으며, 최고 등급인 1등품은 8kg이 확보돼 1kg 기준으로 82만2천500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1등급 송이 최고가는 1kg당

최근 3년간 양양송이 공판량은 2020년 7천493kg, 2021년 2천948kg, 2022년 4천 734kg이다. 양양송이는 버섯자체의 수분 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됐다. 이날 공판장에서는 송이 외에도 능이와 고무버섯 등 최근 수요가 높아진 임산물도 입찰한다. / 서종익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실손보험이  
있**5** 없**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 간호형, 무배당 |

점점 쌓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질병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돌려받고 듣든한 내일을 만드세요

※ 요양병원·간호형 치료비 제외 ※ 비급여 제외

**1년간 들어간  
본인부담금 보장**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하는데 보험금 지급  
(연간 총 급여이용비 중 본인부담금 기준)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간한도 리필**

연간  
※ 연간한도 최대 1천만원

계약일 (24.7.10) → 연간한도 리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주계약 보험료 할인**

보험첨약 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 확인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 5% 할인  
(최초계약 납입기간 동안 적용)

## 서울우유, 10월부터 편의점서는 1L에 3천200원…4.9% 인상

200mL는 9.1% 오르고 1.8L 대용량은 11.7% 인상



다음 달부터 서울우유 흰 우유 제품 편의점 가격이 4.9%~11.7% 오른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 우유 제품 ‘나100% 우유’ 가격은 1L에 3천50원에서 3천200원으로

로 4.9% 오른다.

흰 우유 중 다른 용량 제품의 인상 폭은 더 크다. 200mL 제품 가격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9.1% 오르고, 1.8L 제품 가격은 5천550원에서 6천200원으로 11.7% 오른다. 서울우유는 흰 우유뿐 아니라 가공유와 요거트 제품 가격도 인상한다.

가공유는 300mL에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11.1% 오르고, 요거트 비오프는 1천800원에서 2천300원으로 27.8% 인상된다.

지난 달 29일 서울우유는 오는 10월부터 나100% 우유(1L)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낙농진흥회가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原乳)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양희진 기자

## 카카오, AI 기술로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 제한한다

최근 정책 설명회 개최해 발표  
향후 변경 가능성은 안 닫아

카카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카오 톡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카카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기회요인(창작 생활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증진, 기술이 부족한 창작자들의 유입에 따른 창작 활동 증가 등)과 위험 요인(창작자와 제삼자에 대한 권리 침해, AI 이모티콘이 인간 이모티콘으로 오인됨에 따른 혼란과 불편, 소비자에게 불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등)을 분석해 각각의 위험 요인에 대해 조언하고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 카카오

그러면서도 “현재 기술·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 제한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생성물이 제삼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며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기적 정책 방향 제안의 논거로 제시됐다.

다만 연구진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모티콘의 수용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창작자들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AI 생성물을 관할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입점 제한 정책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한 올해 초 카카오는 몇몇 창작자들로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 제한을 받았다.

당시 카카오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창작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을 잠정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백도경 기자

내맘같이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NH농협생명이 응원합니다

NH농협생명

# 월 6만5천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이용…기후동행카드 첫선

## 지하철·버스·따릉이 모두…내년 1~5월 시범운영 후 하반기 본격시행

월 6만5천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가 처음 나온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원으로 구매한 후에 한 달 동안 서울을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실물 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최초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후 매월 6만5천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

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며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해 이를 줄이려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52.9%로 2018년 65.1%보다 줄었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같은 기간 24.5%에서 38.0%로 늘었다.

특히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송원기 기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G마 카드 미사이 하끼 이르어내'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동, 12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도와 시군 특례 발굴 담당자가 참석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조만간 추가 특례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으로 3차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영 특별자치주진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달성할 수 있는 양질의 특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향성 정립이 필수적"이라며 "분야별 전문가,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향후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정 당시 23개에 불과했던 법 조항을 2차례 개정을 통해 84개로 늘렸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조항이 빠져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신재일 기자

## 용인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25일부터 운영…도내 첫 종합병원급



경기 용인시는 강남병원이 관내 첫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자정돼 오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으로, 시도지사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내 병의원 중에서 선정해 지정한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지정된 달빛어린이 병원 18곳 가운데 의원급이 아닌 종합병

원급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병원은 오는 25일부터 2025년 9월 24일까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처방 약은 강남병원 인근 강남플러스 약국, 태평양약국, 셀메드주오약국 등 3곳이 요일별로 조제를 맡기로 했다. 용인 관내 소아·청소년은 19만여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관내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뿐 아니라 인접 지역 해당 연령 환자도 응급실이 아닌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아·청소년 환자가 분산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의 혼잡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민숙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장릉 앞 아파트' 논란에 "공동실사 요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김포 장릉(章陵) 앞에 세워진 대규모 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 실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당국의 허가 없이 짓어져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가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세계유산위원회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이달 10~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제45차 회의에서 다루게 될 문화유산 보존 의제 가운데 '조선왕릉'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김포 장릉 문제와 관련,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

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 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그의 부인 인현왕후(1578~1626)를 모신 무덤이다.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지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는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봤으나,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위원회는 올해 3월 국제기구 자문단이 김포 장릉 일대를 둘러본 결과를 언

급하며 "최근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유사한 상황이 다른 유산 구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M·이크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3월 13~17일 방한해 김포 장릉 등 조선왕릉의 보존 상황을 살펴봤다.

위원회는 "유산의 OUV를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의) 권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세계유산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전면적 검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도 조선왕릉의 보존 상황을 논의할 전망이다.

/ 노유정 기자

## 삼척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힘 보탠다



삼척시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참여 봄 조성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총 44개 단체 3만5천여명에게 산림엑스포 관람·견학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청 직원의 견문을 넓혀주고자 입장권 900여장을 구매해 현장 견학도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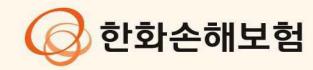
지역 초·중·고교 학생 600여명은 산림엑스포 행사 및 체험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산림엑스포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고성군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산림의 발전 방향 모색에 도움을 주는 국제적인 행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원종현 기자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화상창구 서비스 | 생명다양성·환경 보호를 위한 임직원 활동 참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교육 활동 |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현장 공표

## “회의 후엔 물회, 수요일엔 수산물”…울진군 소비 촉진 안간힘

경북 울진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에 대응해 소비 촉진에 나섰다.

울진군은 11일 죽변면 죽변수협에서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수산물 월요 미식회’를 열었다.

수산물 월요 미식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군청에서 하던 간부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 현장에서 회의한 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점심을 먹는 행사다.

이날 군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죽변 수협, 수산자생단체장 등은 회의를 마치고 물회, 회덮밥 등 수산물로 이뤄진 식사를 하며 어업인과 상인을 격려했다.



군은 18일에는 후포면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열 계획

이다. 이와 함께 군은 매주 수요일은 수산물 먹는 날로 정해 울진군 공무원 및 공기

관 직원에게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권장한다. 2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33회 경북 도민생활체육 대축전 때는 울진 수산물을 홍보하거나 무료 시식회를 마련한다.

군은 10월 가을 관광 철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 어시장 입구에서 한 컵 물회 맛보기를 무료 제공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견사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지역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고소당한 교원에게 변호사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악의적 민원에 대응”

###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 오산시의회 “예산 삭감 공개 비난한 체육회장 자진 사퇴하라”

체육회장, 시민의날 행사서 “예산 삭감 시의원을 왜 내빈 소개하나” 발언



성명 발표하는 성길용 오산시의장(기운데)

경기 오산시의회가 ‘시민의날 체육회’ 행사장에서 체육회 예산 삭감을 이유로 시의회를 공개 비판한 체육회장을 대

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은

24만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비하했다”며 “체육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권 체육회장은 제3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대회사 도중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 오산시의원들을 왜 내빈으로 소개하나”, “체육회 예산을 깎은 행위는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의원들은 선거철만 인사하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권 회장이 언급한 ‘예산 삭감’은 의회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체육회 예산 3건 가운데 워크숍 행사 예산 1천100만원

을 삐감한 것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는 올해 본예산에서 체육회 1년 운영예산 약 8억원을 의결했고,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에서는 체육인의 밤 행사(1천300만원)와 워크숍이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해 워크숍 예산만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의회를 비난하고 흡집을 낸 것은 향후 체육회 예산의 결과 과정에서 시의회에 압력을 행사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체육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밸류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길용 시의장은 “체육회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적법한 예산 심사 과정에 참여한 시의원까지 비하하는 도를 넘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김재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교과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녹음 전화 운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남유정 기자



###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퇴직연금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100가지 재미 선사합니다” 내달 6~15일 청원생명축제 개최



청주시는 10월 6~15일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지역 대표 농축산물 축제인 2023 청원생명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에 재미를, 청원생명에 건강을 담

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서는 100여 개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100여개 농가가 고구마, 표고버섯, 사과, 한우고기 등 우수농축산물을 선보인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축제 기간 문의문 화재단지와 청주동물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권을 가지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하면 2천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민호, 김연자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청주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전국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청원생명가요제, 히든싱어 콘서트, DJ 페스티벌, ‘불타는 미스 미스터리’ 등 공연이 10일간 이어진다.

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승마 체험, 동물 먹이 주기, ‘황금 소로리볍씨를 찾아라’, 대형 플레이스 퍼포먼스 등 연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체험행사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입장권은 일반권 5천원으로 단일화됐다. 현금 성격의 입장권은 그 금액만큼 축제장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축제 기간 문의문 화재단지와 청주동물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권을 가지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하면 2천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 이은정 기자

## 이민지,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연장 우승…LPGA 통산 9승

3위로 마친 중국 인뤄닝, 세계랭킹 1위 예약…이미향 공동 5위

호주 교포 이민지(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지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켄우드CC(파72·6천54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더블 보기 하나를 끓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칠리 헐(잉글랜드)과 동타를 이룬 이민지는 이어진 연장전 두 번째 홀에서 버디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4억원)다.

이민지는 지난해 6월 메이저대회 US 여자오픈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LPGA 통산 9승을 달성했다.

2021년 메이저대회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지난해 US여자오픈을 포함해 2승을 거뒀던 이민지는 이번 시즌엔 두 차례 톱10에 그치다가 15번째 출전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민지는 현재 출산 휴가 중인 박인비와 오래 호흡을 맞췄던 캐디 브래드 비처(호주)와 이번 우승을 합작했다.



우승 트로피 든 이민지

이민지는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타가 꽤 이어졌다. ‘끝까지 하자, 어디서 끝나는지 보자’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샷에 최선을 다했고, 연장전 승리로 이어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아시아에서 이어질 대회와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을 앞두고 남은 시즌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싶었다. 이제 목표를 다시 세우고 아시아 대회와 투어 챔피언십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역전극을 노린 헐은 LPGA 투어 통산 3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중국의 2002년생 신예 인뤄닝은 이날 5타를 줄이며 이번 대회를 3위(14언더파 274타)로 마쳐 세계랭킹 2위에서 1위로 진입이다.

이미향은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CME글로브 포

인트 60위까지 출전하는 최종전)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혜진이 앤드리아 리(미국) 등과 공동 11위(10언더파 278타)에 자리했고, 신

지은과 유해란은 공동 23위(6언더파 282

타),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41위(3 언더파 285타)로 마쳤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인뤄닝은

올해 4월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과 6월 메이저대회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것을 비롯해 이번 시즌 7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기량을 보인 끝에 세계 1위까지 올랐다. 특히 그는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에선 모두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앤리 유잉(미국)은 4위(12언더파 276타)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에 이미향이 최종합계 11 언더파 277타, 공동 5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이미향의 이번 시즌 첫 톱10 진입이다.

이미향은 “2018년에 이은 통산 2번째 월드컵 파이널 우승을 이뤄냈다.

월드컵 파이널은 월드컵 1~4차 대회 리커버·컵파운드 남녀 개인전 우승자와 월드컵 개인전 성적으로 집계되는 월드컵 랭킹 포인트 상위 3명, 개최국 우수선수 1 명 등이 모여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다.

종목별 동일 국가 선수의 출전은 2명으로 제한된다.

강채영과 함께 출전한 임시현(한국체대)은 준결승에서 발렌시아에게 진 뒤 3위 결정전에서 케이시 코풀드(미국)에게 6-0(28-25 25-24 28-25)으로 승리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우석(코오롱)이 결승에서 마르쿠스 달메이다(브라질)에게 4-6(28-29 29-30 30-29 29-27 28-29)으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우진(청주시청)은 8강전에서 디라즈 봄마데바라(인도)에게 2-6(29-28 28-30 26-29)으로 져 입상에 실패했다.

컵파운드에서는 여자부에 조수아(현대 모비스)가 한국 선수로 유일하게 출전, 3위 결정전에서 다프네 칸테로(멕시코)에게 142-144로 아깝게 졌다.

월드컵 일정을 모두 마친 국가대표 선수들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를 이어간다.

/ 이경준 기자

강채영, 양궁 월드컵 파이널 우승…올해 ‘왕중왕’ 등극



종목별 동일 국가 선수의 출전은 2명으로 제한된다.

강채영과 함께 출전한 임시현(한국체대)은 준결승에서 발렌시아에게 진 뒤 3위 결정전에서 케이시 코풀드(미국)에게 6-0(28-25 25-24 28-25)으로 승리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우석(코오롱)이 결승에서 마르쿠스 달메이다(브라질)에게 4-6(28-29 29-30 30-29 29-27 28-29)으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우진(청주시청)은 8강전에서 디라즈 봄마데바라(인도)에게 2-6(29-28 28-30 26-29)으로 져 입상에 실패했다.

컵파운드에서는 여자부에 조수아(현대 모비스)가 한국 선수로 유일하게 출전, 3위 결정전에서 다프네 칸테로(멕시코)에게 142-144로 아깝게 졌다.

월드컵 일정을 모두 마친 국가대표 선수들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를 이어간다.

/ 이경준 기자

대한하키협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 5천만원



차례 우승했다. 조코비치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US오픈을 훙쓸었고, 월드컵에서만 준우승했다. 이번 US오픈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40억1천만원)다.

조코비치가 한 해에 3개 메이저 대회를 훙쓴 것은 2011년과 2015년, 2021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특히 조코비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출전하지 못했던 호주오픈과 US

오픈에서 올해 패권을 탈환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만일 조코비치가 지난해 호주오픈, US

오픈에 나갔더라면 메이저 우승 횟수는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세웠다.

1987년 5월생인 조코비치는 1968년 이

후 US오픈 남자 단식 최고령 우승 기록도





우리금융그룹



- 📍 재난재해 지원 긴급 출동
- 📍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 📍 농어촌 학생 진로탐색 멘토링
- 📍 생명의 숲 조성
- 📍 울진 숲길 산불피해지 복구
- ⋮

우리금융그룹,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다 우리잖아요~”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모두’를 위해  
101가지 사업과 우리금융미래재단 출범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